

I. 시작하는 말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 동네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가 그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오전 9시에도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해 놓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만큼 주겠다고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또 3시간이 지난 12시에도 이와같이 하고 5시에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날이 저물매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고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시도, 12시도, 9시도 그리고 가장 먼저 온 6시에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먼저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때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고, 이와같이 하는 것은 내 뜻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면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오던 내 인생에 내 방법이 맞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를 그 속에 넣으시려고 하십니다.

II. 중심 말씀

1.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올 때가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딱딱하고 고정된 우리들의 생각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올 때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관점을 바꾸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고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그렇죠?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감사의 태도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가장 주인이 고마웠을 사람은 바로 먼저 일을 구한 품꾼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품삯으로 인해 걱정을 안해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을 못 하는 품꾼들은 더 초조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샅을 받을 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나중 되었던 자가 가장 큰 감사를 느끼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먼저 된 자가 가장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2.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 된 자들이 계속 처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의 기쁨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나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남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음이라면 1시간 일하고 나서 주인이 막내에게 샅을 주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죠. 도리어 고맙죠. 관점을 바꾸고 나니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고 불편하고 주인이 부당하고 여겨졌던 우리들조차도 관계만 썩 바꾸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3. 믿음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낯선 이들을 만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일들을 통해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싸움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해 관점을 바꾸는 씨름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찬292)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을 뉘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예수가 함께 계시지(찬325)

- 1) 예수가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 이세상사는 동안에 주이름전파 하면서 무한한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 이세상친구 없어도 예수는나의 친구니 불의한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 주께서심판 하실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사랑에 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